

# 광주시 집중 호우 침수피해 선제 대응

### 상반기 예산 94억원 투입

### 노후관로 정비·하수도 수선

### 스마트 침수 대응시스템 구축

광주시가 매년 기상이변 등으로 반복되고 있는 '계절성(국지성) 집중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극심한 가뭄과 함께 특정 시간대 폭우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 패턴이 반복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심 상가와 주택 등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 2020년 8월에도 7~8일 이틀 동안 광주에 500년 빈도(500년 만에 한번 내릴 가능성) 누적 강우량을 넘어선 516.1mm가 쏟아지면서 영산강 등 국가하천이 넘치고 하수가 역류하는 바람에 시민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기도 했다. 당시 주택

915동이 침수되는 등 1420억원의 역대급 재산피해를 입었다. 당시 빗물이 빠져나가야 할 하천 물이 범람하면서 되레 하수관로를 타고 도심으로 유입돼 피해를 키웠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48시간 기준 447.6mm), 지방하천은 최대 100년 빈도(400.9mm), 하수관로는 최대 20년 빈도(299.3mm)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500년 빈도 폭우가 쏟아진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지성 집중 호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올해에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호우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일단 올 상반기에만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도로 꺼짐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하수도 예산 94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시는 자치구 지원사업 25건에 53억원을 들여 노후관로 등을 정비하고, 하수도 수선유지비 44억원 중 41억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침수와 노후 하수관로 등에 따른 지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고, 우수 흐름이 좋지 않은 하수관에 대해서는 퇴적토 준설과 빗물 유입구 정비, 유입구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해 침수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도 백운광장 등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시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해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2015년부터는 2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 1910km에 대해 사업비 1506억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신 광주시 수질개선과장은 "하수도 관련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면서 "국가 하수도 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침수 예방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우리 동네에는 어떤 사업체들이 있을까

### 광주시 2월9일~3월6일 조사

### 18만여곳 ...종사자 등 10개 항목

광주시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광주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각 지자체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지역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약 18만 7000여 개)이며, 가구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가구 내 산업활동 사업체는 가정 내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1인 유튜브, 간판없는 공부방 등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장 대표자, 창설년월,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매출액 등 총 10개

다. 광주시는 이중 사업장 대표자, 창설년월, 조직형태, 매출액 등 4개 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해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조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조사원을 파견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면접해 진행한다. 상황에 따라 전화, 배포조사도 가능하다. 또 주관기관인 통계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코로나19 등 각종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12월 말 확정·공표되며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통계 기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작성이 필수"라면서 "지역 사업체의 적극적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어린이집 원아 안전체험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7일 광주시 동구 용산차량기지 안전체험관으로 화순 한양립스어린이집 원아 14명을 초청해 원아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담긴 안전펜스를 소개하고, 다양한 안전활동을 체험하는 특별 견학을 진행했다.

## 광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사전 기술진단

### 포집·이송시설 보조금 추가 지원

광주시는 "도금·도장·인쇄사업장 등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기술진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의 90% (국비 50%, 시비 4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35개 사업장에 20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사전 기술진단 없이 방지시설 교체 비용만 지원해 방지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집장치 등이 개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질 개선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조금 신청에 앞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의 포집·이송·방지시설·송풍기 등 전체 시설을 사전 진단하고 성능을 평가해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사전 기술진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대

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포집·이송시설에 대한 보조금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 한도 금액의 30%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사전 기술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 28일까지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선착순으로 3월말까지 현장 진단을 할 예정이다.

송진남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청소년이 일하고 싶은 가게 77곳 선정 지원

### 상하수도요금 보조 등 인센티브

광주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23년 청소년이 일하고 싶은 가게, 알바전화사업장"으로 선정된 77곳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소년 알바전화사업장은 만24세 이하 청(소)년을 1명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하는 등 노사상생을 실천하는 광주지역 사업장이다.

광주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7년부터 알바전화사업장에 대해 해마다 현장조사 심의 등을 통해 재정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재정정한 54곳과 새로 선정

한 23곳 등 총 77곳을 지원한다. 롯데리아 광주점 단점, 버거킹 수원점, 도미노피자 광주지원점, 파리바게뜨 광주용두점 4곳은 5년 연속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1년간 청소년 알바 전화사업장 인증 현판 부착, 상하수도요금 보조, 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청소년알바전화사업장 위치안내 지도를 제작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업장 홍보를 지원한다.

알바전화사업장은 광주시 청소년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6년 4월 전국 최초로 설립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조사, 찾아가는 노동상담, 권리구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친환경 보일러 미세먼지 감축 효과 '톡톡'

### 광주시 교체비 대당 10만원 지원

### 질소산화물 배출 8배 이상 낮아

광주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유도하는 지원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노후보일러 대비 대기오염물질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8배 낮고, 에너지 효율은 12% 높아 난방비도 연간 최대 13만원 정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66억원을 투입해 총 4만 1635대를 보급해 연간 온실가스 1만600t, 질소산화물 150t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저녹스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시

는 올해 19억원을 들여 1만6500대(일반가정 1만 6000대, 저소득층 500대)의 친환경보일러 교체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저녹스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주택 소유자나 주택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지원금은 1대당 일반가정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이다.

보일러 설치(교체)를 원하는 시민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가정용보일러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온실가스 4200여 t, 질소산화물 60여 t을 저감하고, 고효율로 연간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다"며 "가정에서부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천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